

# 조직 이탈, 폭로·고발로 얼룩... 교육감 선거 '진흙탕 싸움판'

전북교육감 선거가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폭로와 고발, 단일화 갈등으로 얼룩지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비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거래 의혹과 상호 비방, 시민단체의 고발전 조직 이탈 및 지지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치 교육은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남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선거권의 중심에는 천호성·이남호 예비후보를 둘러싼 정치적 거래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유성동 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천호성 후보와의 정책 연대와 단일화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대가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남호 후보 측 인사들로부터 오히려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후보는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정치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며 "천호성 후보와의 단일화와 정책 연대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대가 약속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저는 교육계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ബ이 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마타도어식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신속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 후보자 간 단일화 갈등·정치공작·매관매직 의혹까지 '교육 공동체 내부 분열 최소화 위해 정책 중심 경쟁해야'

이에 대해 이남호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선대위는 "유성동씨가 주장한 '정치적 거래 제안'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인 음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는 또 "당시 만남은 전북교육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갖춰야 할 도덕적 원칙과 교육적 명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정치적 거래는 단 한 단어도 오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남호 선대위는 "천호성·유성동의 허위폭로와 정치공작을 강력 규탄한다"며 "자신들의 '정책국장 자리'를 위해 의혹을 덮기 위한 '몰타기 전략'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유성동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단일화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13일에는 황호진 전 예비후보 선거조직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황호진·이남호 단일화를 공개 비

판하며 천호성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황호진 후보는 어떠한 설명과 협의도 없이 이남호 후보와 단일화를 강행했다"며 "지난 몇 개월간 함께 한 등지애를 버리고 급히 이남호 후보에게 가반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고 반발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과 총장 재임 시절 전국 최하위 청렴성을 가진 후보와의 단일화는 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선택"이라며 "교육은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남호 선대위는 천호성 후보를 향해 "가짜 민주진보 코스를 짜주며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선대위는 "천 후보는 상습폭력 등 각종 도덕성 논란으로 민주진보 단일 후보 경선 검증에 패했다"며 "필요할 때만 민주진보 간판을 꺼내 쓰는 선거용 프레임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허위이력 기재, 상습폭력 의혹, 현직 교

사 선거 개입 의혹, 연구년 편법 출마 논란에 이어 최근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까지 상식을 넘어 도덕적 파산 수준에 이르렀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선거판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열린민주시민연대는 서거식 전 전북교육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서 전 교육감이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있다"며 "공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선무효 이후에도 약 12억5천만원 규모의 선거비용 보전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반환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흐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정책 논의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각 후보들은 미래교육, 학력신장, 공교육 정상화, 교육복지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선거 국면에서는 정책보다 폭로 전이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천호성 후보는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시 중심 경쟁교육을 넘어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능·내신 절대평가 체제 전환과 고교 서열화 해소 등을 주장했다.

또 "전북은 수도권 중심 교육체제의 주변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경쟁이 아니라 성장으로 평가받는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호 후보 역시 학력 회복과 교육 신뢰 회복, 실용 중심 교육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학부모 단체 등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교육 정착한 큰 일꾼 이남호와 함께 만들겠다"며 지지를 선언했고, 행복한학부모모임 아이디어 역시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여야 한다"며 이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 선언과 단일화 의혹 제기과 반박이 반복되면서 유권자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 교육 철학과 정책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며 "후보 간 상호 비방과 폭로전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논의해야 할 선거가 진영 싸움과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권자들도 감정적 대립보다 후보들의 실제 교육 비전과 정책 역량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전북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선거판은 교육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 후보를 겨냥한 폭로와 반박, 고발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진흙탕 선거'라는 비판 속에 깊숙이 빠져드는 모습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남을 상처와 갈등, 교육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중심의 경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민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 싸움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비전이라는 점을 후보들이 다시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오상근 기자

## 미래 역량 강화... '솔찬한 창업'

김제 백석초, '전북 유일' 창업 교과활동 운영 15년 노작교육 바탕, 학생 주도... 27일까지

김제 백석초등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창업 교육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백석초등학교 교장 오경숙은 전북지역 유일의 학교자유시간 창업 활동인 '솔찬한 창업' 프로젝트를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백석초는 지난 2014년부터 휴을 일구고 생명을 가꾸는 노작(勞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과 탐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이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와파'를 실천해 왔다.

'솔찬한 창업' 프로젝트는 이러한 노작교육의 가치를 미래형 교육으로 확장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3학년부부터 6학년까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3~4학년은 배움 단계로 창업의 기본 개념과 아이디어 발상 방법을 익히고 기초적인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협동과 문제 해결의 기초 역량을 키운다. 5~6학년은 '실행 및 총괄 단계'로 수요와 시장을 분석해 창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제 운영 과정



까지 경험한다. 특히 수익금 나눔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게 된다.

학생들은 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며 실제 경제활동을 체험한다. 특히 오는 22일에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판매하는 창업 한마당도 열린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축제로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오경숙 교장은 "창업 교육은 표준화된 교과 과정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생생한 교육 활동"이라며 "15년간 이어온 백석초의 노작교육과 창업 활동이 만나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진정한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소년체전 전북 선수단 사건격려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청주나래 시청각실에서 제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대표 선수단 사건격려회'를 개최했다. 이번 격려회는 오는 23~26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들의 시기를 높이고,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전교조 전북 "악성민원 승소 판결 환영"

반복 민원에 우물·안면마비까지... 법원, 학부모에게 3000만원 배상 지급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민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전주지방법원이 2년여에 걸친 반복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며 "교과 속에서도 끝까지 법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은 교원에게 깊은 연대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MBC PD수첩'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안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를 비롯해 생활통지표 수정, 과목별 수업계획서와 총괄평가 세부계획서 제공 요청 등 반

복적인 민원과 항의에 시달렸다.

그 결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안면마비 증상까지 겪었으며, 법원은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러나 "승소 판결에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많은 교원들이 유사한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최근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일회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교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교사가 병원을 치료받거나 소송까지 가지 않도

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압류·추심 등 복잡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도 문제로 꼽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은·오프라인 접근 금지 조치와 교육청의 대응청구 범위를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오상근기자

## 전북교육청, 지선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점검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1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거 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 분위기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공무원의 정치 참여 행위뿐 아니라 복무 위반, 소극행진,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특정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특정 후보자·정당 선거운동 지원 △특정 정당이나 후보 업적 홍보 △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반대 의사 표현 △선거 관련 가짜 뉴스 게시·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위반 △업무지연과 직무태만 등 소극행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 중이다. 도민과 교직원은 도교육청 누리집 내부 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청은 특별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중을 불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전주대 산업공학과 기계가공학회 '혁신상'

전주대학교(총장 류두원)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린 '2026년 한국기계가공학회(KSMPE) 춘계학술대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상을 받은 논문은 '시나리오 기반의 멀티모달 자율주행 다목적 능동 운전자 개발'로, 이창호 책임교수의 지도 아래 오승욱·이상민·이강욱·이대성·배정민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의 전북형 모빌리티 클러스터 과제에서 수행 중인 연구로, 농업 현장에서 시나리오 기반의 자율주행 스마트농업기술을 통해 전북형 미래수송기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훈기자

## '전북형 민주시민역량지표' 개발 추진

전북교육청, 연말까지 지표 개발 완료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전북형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주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위원단을 구성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개발단을 꾸려 지

표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말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도 실시했다.

사전 검사는 합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공공선과 공동체 의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문화다양성과 공존 △지속가능성과 상생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6개 핵심 역량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기초 통계 분석(5~6월) △탐색적 요인 분석(6~7월)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7~10월) △사후검사와 효과성 분석(11월) 등 4단계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지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 26년째 제자사랑 실천... 전북보건교사회, 난치병 학생에 장학금

전북특별자치도보건교사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26년째 제자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보건교사회(회장 이태욱)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서 문예체건강과와 난치병 학생 소속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난치병 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교사회는 금성 립포모구성 백혈병, 1형 당뇨병, 황반군 출혈 등 난



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5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증서는 학생 소속 학교 관계자를 통해 전달했다. 이태욱 회장(연산중학교)은 "배년

스승의 날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난치병 제자를 위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장기적인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교사회의 난치병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제자 사랑과 교육공동체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시작됐으며, 올해로 26년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총 115명의 학생에게 1억1,4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오상근기자